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욥: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위로"

신정론(Theodicy) 시리즈 ①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위로의 하나님

D. A. 카슨 지음 | 한 동 수 옮김



C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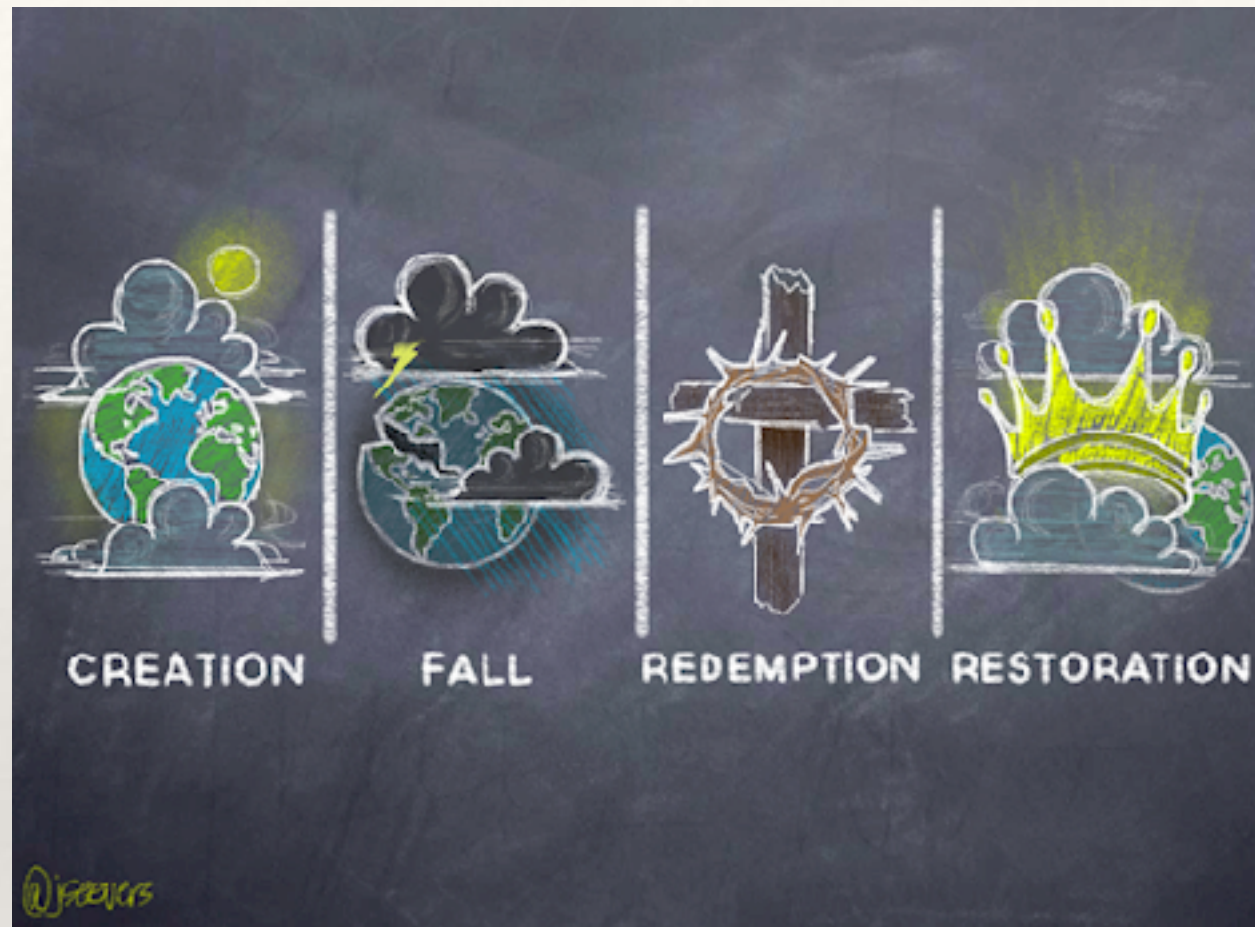


8주차 주제

“욥: 신비와 믿음-1”

1.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의 욥
2. 욥과 친구들
3. 욥의 탄식
4. 기계적 인과론의 한계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이 책(욥기)이 정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악과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악과 고난은 어떤 그럴듯한 ‘해법’에 쉽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카슨, 241.

신명기적인 이해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욥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욥의 고난과 첫 반응(1-3장)
- 친구들의 논변과 욥의 항변(4-31장)
- 엘리후의 논변과 욥의 항변(32-37장)
-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고백(38-42장)

1.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의 욥

욥은 고대 에돔 지방에 속하는 우스에 살고 있었고, 세번에 걸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린다. 욥 1:2, 3, 8

-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다. “...욥은 항상 이러하였다.” 욥 1:5

- 양이 칠천 마리, 낙타 삼천 마리, 소 오백 겨리, 암나귀 오백 마리

- 사탄의 참소, 곧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라는 주장. 첫번째는 소유물 강탈, 두번째는 욥 자신의 육체적 고통. 욥 1:11; 2:4-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실한 신앙. 욥 2:9-10

2. 욥과 친구들

3장 후반부 친구들의 등장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 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썼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 2:11-13.

참된 위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2. 옅과 친구들



3. 옴의 탄식

- 고통을 호소하고 신원을 요구하는 탄식의 기도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옴 3:3-4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렘 20:14-18”

3. 욥의 탄식

- 욥의 고난과 섭리에 대한 이해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 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 3:25-26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욥 3:23

4. 기계적 인과론의 한계

- 신명기적 사상(28장)의 기계적 적용 한계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 4:7-8

-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강화와 일반화

“한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 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욥 4:12-17

8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왔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왔던 일은 무엇인가?
-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가족, 친구, 교우에게 내가 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이고, 그 위로는 어떠한가?